

韓 증시, 바닥 쳤나… 코스피 올 들어 7% 상승 ‘실적 순항’

주요국 증시상승률 홍콩 이어 2위
이달 외국인 추가매도 가능성 제한적
미·중 무역전쟁 냉각기 접어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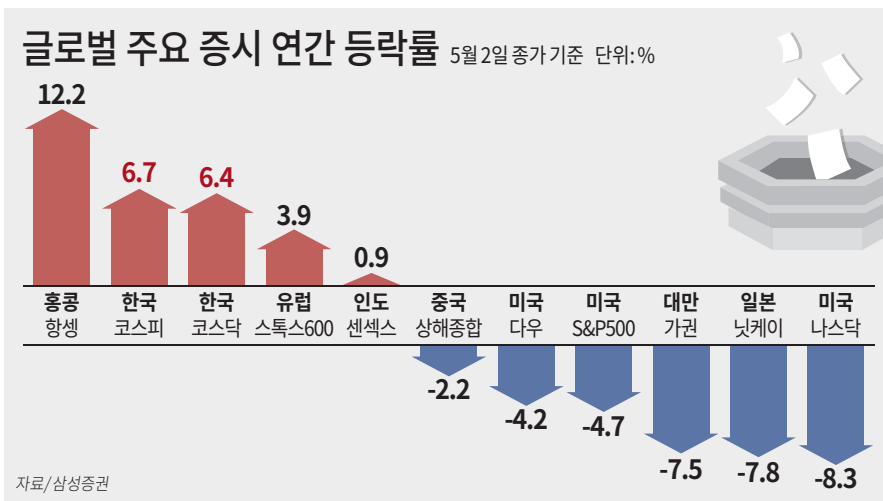
韓 기업 60% 이상 1분기 ‘호실적’
기업 3곳중 1곳은 ‘깜짝실적’ 기록

지난해 주요국 증시 가운데 연간 수익률 ‘꼴찌’를 기록한 우리 증시가 올해 들어서 반전에 성공, 상위권을 줄곧 지키고 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바닥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데다 환율 안정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적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 우려, 정치 불확실 등 대내외 변수에도 상장사들은 1분기에 ‘A’ 학점의 영업 성적표를 받아 들고 있다.

◆한국증시 체력 강해졌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4.01포인트(0.55%) 오른 2573.80에 마감했다. 올해 들어 약 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들 미국·일본·유럽·대만·중국·인도 등 우리나라 증시와 자주 비교되는 증시와 비교한 결과 코스피는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홍콩항셍지수이다. 올해 들어 국내 시간으로 7일까지 미국 다우존스30 산업평균 지수는 4.03%, 나스닥 지수는 8.39%, S&P500은 4.67% 하락했으며, 일본 닛케이225도 7.80% 떨어졌다.

이달 들어서는 ‘셀 인 메이(Sell In May)’ 전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오히려 상승 압력이 작용할 가능성에 무게감이 실린다. 김종

민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5월의 하락 국면에서 주요 매도 주체는 외국인이었으나 현재의 환율 환경과 코스피 밸류에이션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며 “현재의 한국 증시는 지수보다는 주도주가 중심으로,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매수세가 뚜렷하게 유입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도 점차 냉각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우려보다는 기대가 커질 것

으로 봤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흐름은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으며, 한국 증시 또한 하방 리스크보다 상방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상장사 35%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우리 기업들의 기초체력도 탄탄함을 증명한다.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상장기업 중 60% 이상이 시장 기대를 넘어서는 호실적을 냈다. ‘어닝 서프라이즈(시장 예상치 대비 10% 이상 초과)’ 비율도 40%에 근접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도 증권사 3곳 이상의 3개월 내 실적 추정치가 있는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가운데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은 모두 96곳으로 이중 58곳(58.3%)이 시장에 상치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집계했다. 깜짝 실적을 기록한 기업은 35.4%(34곳)으로 나타났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수요 유입, 중국 경기·소비 회복, 환율 효과 등으로 1분기 실적 호조가 예상되고, 낮은 눈높이는 오히려 예상을 상회하며 서프라이즈로 전환 중”이라며 “코스피

는 2분기 중 2750선을 향하는 상승 추세 전개가 예상되기 때문에 5월 중 단기 등락은 비중 확대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대선 레이스 돌입으로 인한 신정부, 추가 경기부양 기대도 가세하면서 비(非) 미국 지역 모멘텀에 의한 수출 호조에 내수 경기 반등이 맞물릴 것”이라며 “연기금 순매수가 지속(국내 주식 비중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경기 회복 기대 유입 시 원화 강제 압력 확대가 가능하고, 외국인 매도도 정점 통과 후 순매수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하반기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의 1분기 깜짝 실적에도 연간 실적 컨센서스의 상향 조정이 제한적인 모습”이라며 “3분기, 4분기 실적 컨센서스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게 높고, 하반기로 갈수록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떨어지는 계절성까지 감안하면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의 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상장사 횡령·배임 2배 ↑… 신뢰도 ‘흔들’

한국거래소, 작년 9곳→올해 22곳
스타에스엠리츠 등 2곳 ‘거래정지’
“처벌수위 강화, 절차 단축 필요”

올해도 상장사들의 횡령·배임 사건이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소형 상장사들의 내부 통제 부실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기업 신뢰도는 흔들리고, 투자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주식 시장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공시된 상장사는 총 22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산한 수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 9개사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거래소는 공시된 횡령·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5%(자산 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3%)’ 이상이거나, 임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3%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일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결과,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

올해 횡령·배임으로 거래가 정지된 종목으로 스타에스엠리츠와 삼영이앤씨 등이 있다. 스타에스엠리츠는 지난



ChatGPT에 의해 생성된 ‘횡령·배임’ 이미지.

3월 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횡령 금액이 20억 원으로 자기자본의 3.42%였다. 삼영이앤씨는 지난 2월 황전 대표의 249억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갔다. 당시 횡령액은 시가총액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문제는 현행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 횡령·배임 등 금융 범죄의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자들이 기대 수익과 처벌 리스크를 비교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처벌 수위 강화와 절차 단축이 필요하

다는 주장이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제도는 거래소의 인지, 금융감독원의 조사, 금융위 증선위의 심의·의결, 검찰 송치 등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며 “범죄자들은 걸리지 않고 얻을 이익과 적발 시 손해를 비교해 기대값을 계산하는 경향이 있다. 기대값이 높을 경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배임, 횡령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처리 절차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 기업들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배임·횡령 사건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상장사 임원의 금융 범죄 전과 기록을 공개하고, 이들의 기업 취업을 제한하는 등 사전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배임·횡령은 예측이 어려워,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기업 공시의무를 강화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

체코원전 본계약 제동에 원전株 급락

한전기술 3.79%, 한전KPS 1.85%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간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리면서 원전주가 급락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한전기술은 전 거래일 대비 3.79% 떨어진 6만3500원에 마감했다. 한전KPS(-1.85%), 두산에너빌리티(-1.44%), 한전산업(-5.89%) 등 원전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했다.

6일(현지 시각)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사이의 두코바니 원전건설 사업에 대한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7일로 예정됐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 본계약 서명이 불발되면서 원전주가 타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브르노 지방법원의 결정으로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이 연기된다.

앞서 EDF는 사업비 26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주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되자 신청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체코 경쟁 당국이 이를 최종 기각했지만, 지난 2일 EDF가 다시 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방이 연장됐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체코와 프랑스 정부 간 협상 등으로 이번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향후 가능한 시나리오 세 가지로 ▲가처분 해제 및 한수원과의 계약 지속 ▲체코와 프랑스 정부 간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EDF의 승소로 입찰 절차의 변경 및 재추진 등을 제시했다. /신하은 기자

‘美 S&P500 ETF’ 개인 순매수 1조 돌파

미래에셋, 4개월 만의 성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S&P500 ETF’가 올해 들어 개인 순매수 규모 1조원을 넘어섰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TIGER 미국S&P500 ETF’의 연초 이후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는 약 1조500억원이다. 약 4개월 만에 1조원을 넘기며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ETF로 집계됐다.

해당 상품은 지난해에도 개인 순매수 규모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지난해 1조원 순매수 돌파

시점은 8월이었으나, 올해는 이보다 약 3개월 앞당겨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인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전략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TIGER 미국S&P500 ETF’의 순자산은 2일 기준 약 7조7000억원으로, 아시아에 상장된 S&P500 지수 ETF 중 최대 규모다. 미국 대표 ETF인 ‘Vanguard S&P 500 ETF(VOO)’를 국내에서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잡았다.

/허정윤 기자

한국투자, 골드만삭스 등과 글로벌IR 개최

‘KIS 나잇 뉴욕 2025’ 성황

한국투자증권이 글로벌 IR 행사 ‘KIS 나잇 뉴욕 2025(KIS Night in New York 2025)’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뉴욕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단독 진행한 IR행사다. 현지 금융업계와 교류를 강화하고 새로운 협업 및 투자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칼라일(Carlyle), 스티펠 파이낸셜(Stifel Financial Corp.) 등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 임원 및 주요 인사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

후 사업 확대 및 전략적 협력 가능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 금융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종합금융투자회사로 도약하고 있다”면서 “이번 KIS 나잇을 통해 보다 다양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